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향

학교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감,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호는 2024년 본 재단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CONTENTS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II.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응 방향
- III. 면담조사로 본 인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삶
- IV. 인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목소리로 본 지원정책 방향



I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정 밖’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주목하였다. 2023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9~18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188명 응답), 학교 밖이면서 동시에 가정 밖에 있는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이 4%(7명)로 적었으나, 다른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 자기효능감, 자기 존중감 등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보호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록 이들의 수가 많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24년 연구를 통해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고립감을 완화하고, 인천광역시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응 방향

1 용어 전환의 의미 :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때 ‘가출 청소년’이라 불리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 불린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이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책 접근 방식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가출’이라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비행처럼 여겨지도록 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들을 범죄(살인, 강도, 성매매 등)와 연결시켜 보도함으로써, 이들을 사회부적응 또는 사회적 문제의 잠재적 예비자로 바라보는 편견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권고(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11.24.)와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을 비행 주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개인의 일탈보다는 가정 내 폭력, 방임, 빈곤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집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청소년 복지 및 보호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이들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복합적이고 구조적 배경에 주목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들의 삶의 조건과 배경을 구조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용어의 전환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들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적 개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는 이유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가족 환경의 문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이들 중에서도 ‘가족과의 갈등 및 불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박수련·이주영 2018). 실제 통계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23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가출 사유의 56.6%가 ‘부모님과의 문제’였으며, 황여정 외(2020)의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에서도 ‘가족과의 갈등’이 63.0%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인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조사(박주은 외 2020)에서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7.9%가 ‘가족과의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선택일 수 있다(김범구 2019). 이는 존재하지만 보호 체계로 기능하지 않는 환경, 즉,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정폭력, 학대의 악순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고, 이들의 안전한 자립을 돕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3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들

가정 밖 청소년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된다. 이들은 안정적인 주거지 없이 노숙하거나 숙박시설을 전전하고, 소위 ‘가출캠’이라 불리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성매매 등 생계형 범죄에 유입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위험을 넘어, 범죄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심지어 비행을 두려움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을 키워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노

성호, 2013; 민수홍, 2011).

결국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생활비 부족’, ‘갈 곳·살 곳이 없음’, ‘우울·불안’, ‘일자리 없음’ 등의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황여정 외 2022). 이에 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과 ‘숙식제공 등 주거 및 생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 움츠러든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김정남, 박미량, 2021, 55).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학교 밖’과 ‘가정 밖’의 교차점 :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통합 지원 필요성

학교를 떠나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동시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마저 벗어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학교 밖’과 ‘가정 밖’이라는 교차 지점에 위치한 이들은 학업 단절,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경제적 빈곤 등 중첩된 복합 위기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진로 설계, 자립 준비,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성인기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에서 취약해진다. 강주연과 이이든(2019)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 중단 위험이 1.78배 더 높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와 학업 중단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의 77%는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가출 위험은 해당 경험이 없는 도래에 비해 2.6배 증가하였다. 즉,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 체계에서 벗어난 것만 이 아니라, 가정 내 학대, 부모의 양육 포기, 교육제도에서의 이탈 또는 탈락,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적 돌봄 체계인 쉼터 입소를 기피하며, 고시원, 찜질방, 모텔 등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거처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주거 및 공간 문제가 아닌, 공동생활의 불편함, 자율성에 대한 요구, 쉼터의 규율과 생활방식이 청소년 욕구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들 청소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진로 탐색이나 학업 복귀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진입 경로에서 장기적인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학업 중단은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제약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이탈하여 떠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속감의 부재와 고립감이 심화되며, 이는 자기 인식과 미래 계획 수립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이처럼 교육 단절, 경제적 취약, 사회적 고립 등 복합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들에게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이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한 거주지 제공을 넘어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 안정, 사회적 소속감 회복, 그리고 개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차원적이며 개인 맞춤형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RHY)’과 ‘전환생활 프로그램(TLP)’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기 청소년 대상 조기 개입과 청소년 욕구 기반 개별 지원 계획을 중시하며, 최대 18개월의 주거 지원과 함께 검정고사·직업교육·정신건강·건강서비스 등 통합 서비스(TLP)를 제공하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위기 핫라인(NRS)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미국의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 교육 및 기술 지원 센터(RHYTTAC)는 개입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평가하며 청소년 맞춤형 자립 여건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최순종 2021). 호주는 ‘가정 밖 보호 국가 표준안(National Standard of Out of Home Care)’을 마련하여, 가정 밖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사는 지역이 어디든 일관성 있게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류정희 외 2020). 스코틀랜드는 “모든 아동에게 제대로 하기(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 GIRFEC)”라는 모토 하에 ‘안전, 건강, 활동, 돌봄, 성취, 존중, 책임, 포용’이라는 웰빙 지표를 설정하여 스코틀랜드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선욱 2023; The Scottish Government homepage).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지원 범주의 확대, 정보 연계 시스템 강화, 그리고 청소년 주도적 자립 설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인천광역시시는 2019년 11월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일시·단기·중장기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총 9개의 청소년 지원기관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사회 복귀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면담조사로 본 인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삶

1 조사개요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학교는 다니지만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번 면담조사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표 1〉 인천광역시 운영 신중년 관련 사업 성인지 분석 요약

| 유형 (그룹) | No | 성별 | 가정 밖 생활 시작 시기 | 가정 밖 생활 시작 이유 | 현재 기관 이용 | 학교 그만둔 시기 및 복귀 여부 | 학교 그만둔 이유 |
|----------------------|----|----|---------------|-------------------|----------|-------------------|-----------------|
| 학교 밖 & 가정 밖 (A) | 1 | 여 | 18세, 7월 | 가족 간 갈등 및 가정 폭력 | X | 고 1, 7월 | 학교 부적응 |
| | 2 | 여 | 중 1 | 가족 간 갈등 | X | 고 2, 6월 | 학교 부적응 |
| | 3 | 남 | 고 2, 5월 | 가정 폭력 | X | 고 2 중반 | 학교 부적응 |
| | 4 | 여 | 17세 | 가정 폭력 | X | 고 1, 3월 | 공황장애 |
| | 5 | 남 | 19세 | 가정 폭력(쌍방) | ○ | 고 1, 9월 | 본인의 일탈 (음주문제) |
| | 6 | 여 | 19세 | 아동 학대 | ○ | 고 2 | 무기력, 우울 |
| 학교 밖 (과거) & 가정 밖 (B) | 1 | 여 | 17세 | 가정 폭력 | X | 고 1(고 2 재입학) |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
| | 2 | 여 | 중 3 | 가정 폭력 | ○ | 초 5 홈스쿨링 (중학교 진학) | 따돌림 |
| | 3 | 남 | 20세 | 가족 간 갈등 | ○ | 고 1, 3월(다음 해 복귀) | 본인의 일탈 |
| 가정 밖 (C) | 1 | 남 | 중 3 | 부모의 양육 어려움 | ○ | | |
| | 2 | 남 | 고 3 | 보육원 생활 부적응 | ○ | | |
| | 3 | 남 | 고 2 | 가족 간 갈등 | ○ | | |
| | 4 | 남 | 15세 | 가정 폭력 | ○ | | 친부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
| | 5 | 남 | 초등학교 졸업 후 | 본인의 도벽 및 모친 건강 이유 | ○ | | |

2 왜 집을 떠났을까? - 복합적인 가족 갈등과 돌봄 부재

응답자들이 집을 나오게 된 배경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정 해체, 가정폭력, 부모의 돌봄 부재, 가족 간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동거인과의 갈등, 부모의 양육 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청소년은 한부모 가정에서 주양육자가 더 이상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일부는 음주, 흡연, 도박, 오토바이 운전 등 청소년 당사자의 일탈 행위가 가정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며 자발적인 가출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가족 기능의 붕괴와 제한된 돌봄 환경, 또는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에 있는 것이 힘들어 자해를 반복하였고, 부모님을 학대로 신고하게 되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요.”(A-3)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해주셔서, 그 이후에 쉼터에 오게 되었어요.”(C-4)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내게 됐는데 그 계기가 그때는 제가 도벽도 있고 부모님도 많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있다가는 더 안좋아질 것 같아서...”(C-5)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거나 음주, 흡연 때문에 갈등이 잦아 말없이 가출했어요.”(A-2)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획일적인 보호 중심 정책만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관계 회복, 자율성 보장 등 회복지향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겪은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3 학교는 왜 그만두거나 계속 다닐까? - 심리적 부담과 현실적 필요

학교를 중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무기력함으로 인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일부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나 불안 증상으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힘겨운 곳이었다. 둘째,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학교를 중단한 경우이다. 이는 학업 중단이 단순한 교육 이탈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개인의 일탈 행동 누적(음주, 흡연, 오토바이 운전 등 퇴학 위기)으로 인한 자퇴 사례였다.

“반에 아이들과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공간에 있으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A-2)

“공황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쓰러졌는데 아이들이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버티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어요.”(A-4)

“이유라고 하면 제가 그때 되게 뭔가 무기력해서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 힘들었어요.”(A-6)

“침터에 있을 때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니고 있는 학교 또한 벗어나야 할 것 같아서”(B-1)

“음주를 하고 키가 꽃혀 있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가다 걸렸어요. 학교에서도 라이더로 장난을 치다 걸리게 되고 하면서 퇴학이 결정되었지만 자퇴로 진행하게 되었어요.”(A-5)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학교를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로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실용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을 넘어, 일상을 회복하고 자율성과 제도적·정서적·사회적 지지 및 지원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학교 가서 배워서 취업하는 거랑 바로 취업하는 거랑 대우가 다르다고 많이 들어서...취업처가 더 좋은 데 먼저 취업할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C-5)

이처럼 가정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 여부와 그 배경은 매우 복잡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고, 단순히 학업 복귀만을 강요하기보다 이들이 자율적으로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택의 폭을 좁히거나, 지원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약이 아닌 다양한 진로를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호기심이 양성하면서도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다양한 진로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운동 선수가 꿈인 친구들도 있고 학업적으로도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성년자다, 아니면 여긴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 말고, 넓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중략) 사람들이 약간 그게 있잖아요. 처음엔 흥미가 많았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흥미가 많았을 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강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요...평소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친구...(중략) 뭔가 기회라도 한 번 줘봐야...(중략) 자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인 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중략) 오히려 어릴 때 학생일 때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그걸 해줄 수 있는 기회 그게 많았으면 좋겠어요.”(C-3)

4 정서적 고립, 그러나 사회적 지지 경험과 희망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다수는 지속적인 외로움과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였다. 특히 침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속으로 약간 우울한 거에 되게 불편함을 느낄 때는 있어요.”(A-6)

“어려서부터 자립을 했다 보니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당연하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지받을 때마다 (제)자신은 동떨어진 기분이 들어 묘한 생각이 자주 들어요.”(B-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립’을 ‘혼자 사는 것’, 부모님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의식주가 해결되는 상태’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쉼터 선생님이나 일터의 동료, 지인과 같은 주변 성인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쉼터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자 심리적 지지자,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큰 욕구이지만, 이 외에도 생활 기술이나 일상생활에서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인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큼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등 삶의 중요인 동력을 얻고 있었다. 결국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지지 체계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망(따뜻한 공간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들의 회복과 자립에 핵심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쉼터 담당선생님이예요.”(C-1)

“저는 여기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약간 그냥 정확히는 그 부모가 이런 거 해 주는구나라고 느꼈어요.”(A-6)

“여기 자립지원관에서 담당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뭐 내 이런 거, 처음에 주거 같은 건 이렇게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 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에 부동산들 막...전세사기 이런 게 많아서 같이 따라가서 계약서 쓰는 것까지 하나하나. 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 알려주시고”(C-2)

“막막하고 이렇게나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같은 청소년 청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느껴서 그런 것들이 약간 저희들한테는 좀 더 더 열심히 지내고자 하는 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A-6)

5 주거 불안정과 정보 부족

인터뷰 참여 청소년 다수는 쉼터에 거주하거나 쉼터를 거쳐 자립지원관을 통해 독립하는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 환경(고시원, 반지하 원룸 등)에서 월세 부담, 곰팡이나 바퀴벌레 등 주거 환경 문제, 외부인 출입 제한, 고립감 등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또 일부는 숙박업소와 거리,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했다. 쉼터를 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공동생활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들과의 갈등, 간섭, 규율 등을 이유로 쉼터에 장기 거주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일부는 가정 이탈 초기에 쉼터, 자립지원관, 꿈드림센터 등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몰라 노숙하거나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은 경찰서에 연루된 후에야 비로소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열악한 비공식 주거 환경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고시원의 경우 외부인 출입 금지여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것과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 불편해요.”(A-1)

공동생활의 어려움과 쉼터 회피

“일시 쉼터를 배회 중이지만 만족해요. 단기 쉼터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성인이다 보니 주변 청소년들이 담배를 요청하거나 하는 것이 많아 단기 쉼터는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A-3)

“쉼터의 경우 공동생활이다 보니 불편해서... 돈을 빌려 숙박업소를 가거나”(B-3)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한 한달 정도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있다가...아니면 친구 집 잠깐 들어가서 자거나...노숙하거나...(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마음이 맞는 형이랑 친구들이 있어서, 다 같이 밖에서 생활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돈 같은 거 같이 모이면 그냥 방 잡아서 있다가...이렇게 있다가 사고를 치다 보니 경찰서에 가서 여기를 연결을 시켜줘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이리로 왔죠.”(C-3)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쉼터랑 고아원 같은 데랑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C-3)

“쉼터의 경우 공동생활이다 보니 불편해서... 돈을 빌려 숙박업소를 가거나”(B-3)

이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맞춤형 주거지원 모델과 함께, 쉼터에 대한 오해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주거는 이들이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6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과 미래 탐색 - 정보의 중요성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생활비와 용돈, 월세 및 공과금 등 생계를 위한 경제적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용돈만으로는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으며, 쉼터 밖 청소년들은 훨씬 더 큰 생계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외에도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하다 보면, 검정고시 준비나 자격증 학습, 진로 탐색 등 미래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쉼터와 연계된 일자리나 직업훈련 중심의 아르바이트는 그나마 학업 병행이 가능했지만, 쉼터 밖 청소년들은 어떠한 구조적 지원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평일에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만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제가 학원 다니면 여기(쉼터)도 늦게 오는데 밥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재료도 계속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도 그렇고...”(C-5)

“복싱선수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쉼터에서 체육관비는 내주지만 용돈은 부족한 상황이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C-4)

한편 이들은 생계를 위한 노동 현장에서조차 다양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 동의가 필요한 점, 학교 중단 이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희롱 경험 등 구조적·사회적 장벽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진로 설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키운다.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부모와 단절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고...”(B-1)

“자퇴생이라는 말에 어른들의 무시가 많았어요.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퇴라는 것을 안 좋게 보거나 쉽게 성희롱하는 등 무시를 당했어요.”(A-4)

청소년 중 일부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등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세우고 자격증 취득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다. 특성화고, 대안학교, 자립지원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키우는 사례도 있었다. 쉼터에서 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 계획 및 준비에 있어 학교 중단 여부보다는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을 통한 정보 안내의 유무가 훨씬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며, 무엇보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IV

인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목소리로 본 지원정책 방향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대부분은 학업 복귀보다는 당장의 생계 문제나 진로 탐색에 더 큰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제도 밖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서적 지지 체계로부터도 단절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불안감, 우울감, 자기효능감 저하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상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 수립에도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특히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하지 않거나, 과거 이용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접근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는 이러한 것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기도 하였다.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접근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현장 전문가들의 진단과도 맞닿아 있다.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들은 쉼터 중심의 획일적 보호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규율 중심의 운영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거 대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1인형 임시 거처, 셰어하우스 형태의 자립지원형 주거, 감독형 단기 임대주택 등, 보다 유연하고 개별화된 보호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맞춤형 주거정책은 청소년의 자율성, 개별 욕구, 심리 상태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거처를 선택하도록 정보와 연결이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신뢰와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호 및 주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정 이탈 초기에 접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경찰,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센터 등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관인 만큼, 즉각적이고 민감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담당자가 위기 청소년을 인식하고 적절히 연계할 역량과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 지원의 핵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만약 초기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많은 청소년이 구조 요청 기회를 놓치거나 위험한 환경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청소년 보호 인식 제고를 통해 조기 발견-상담-보호-연계-자립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청소년과 실무자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에 있어 ‘표준화’가 아닌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은 각자 다른 맥락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도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중심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FWF 정책브리프



- IFWF Brief(No.77) 인천광역시 신중년(50+)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 IFWF Brief(No.76)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천의 미래를 위한 약속
- IFWF Brief(No.75) 인천광역시 여성일자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IFWF Brief(No.74)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분석: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중심으로
- IFWF Brief(No.73) 인천 가정폭력 실태와 피해지원 강화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책브리프를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채널 추가하세요.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 511-3141 Fax 032) 518-3828
www.ifwf.or.kr COPYRIGHT(C) INCHEON FOUNDATION FOR WOMEN&FAMILY ALL RIGHT RESERVED

